

# “지역주택조합원 피해 안전장치 시급”

### 김민중 광주시의원 “허가 안받고 편법모집 극성” 거리 불법 현수막 철거도 소극적... 관리 강화해야

최근 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열풍이 불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할 안전장치는 미흡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김민중(광산 4) 시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시제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라

면서 “불법·편법을 동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법상 건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선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행사 등이 편법으로 주택홍보관을 만들어놓고 조합원을 불법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조



합원을 모집하는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는데도, 시는 현수막 철거 등 소극적인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원 모집 전 ‘사전신고제도’ 도입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전 신고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때 벌칙 등을 주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엄격한 관련법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과 달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서민층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해 사전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현재 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9개 단지 6217세대이며 설립인가를 추진 중인 조합은 10개 단지 5529세대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광주·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출 최다, 만족도 꼴찌”

### 이은방 시의원

광주시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급식 예산(세출·결산액 대비)을 지원하고도 학교급식만족도는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교육위 소속 이은방(북구 6) 시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시교육청 학교급식만족도는 각각 78.6점·76.3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점수는 각각 83.1점·83.6점이었으나,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셈이다. 시교육청은 2013년 95% (세출·결산액 대비 5.7%), 지난해



1218억원(≈ 6.7%)을 학교급식 예산으로 지원했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학생(60%)·학부모(20%)·교직원(20%) 점수를 합산해 평균으로 나눈 것인데, 당사자인 학생들 사이에선 시교육청의 학교급식 만족도가 각각 12위(2013년)·17위(지난해)이었다. 이은방 의원은 “학교급식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시교육청이 보편적 복지 실현만을 강조하다 가장 중요한 질적인 부분을 간과한 탓”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내 직장은 어디에... 5일 광주시 광산구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 광산구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부스 게시판에 게재된 취업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시교육청 교수학습능력 지원체계 개선해야”

### 유정심 시의원

광주시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수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정심(남구 2) 시의원이 5일 감사원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사들의 교수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중앙교수학습센터에서는 에듀넷시스템(이하 에듀넷)을 운영하고 있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전국 교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듀넷에는 평가문항



자료가 3만2135건이 들어 있고 16개 시·도 교육청 관하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수학습지원 시스템에는 총 101만 5453건의 평가문항 자료가 축적돼 있다”면서도 “시교육청은 에듀넷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1275건만을 탑재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는 평가문항 자료가 아예 없어 교사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행감자료 요구했다 전교조 교사에 협박 당했다”

### 김옥자 시의원 “희망교실 사업 지출 영수증 요구에 문자 위협”

광주시의회 김옥자(광산 3) 시의원이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희망교실 사업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다가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교사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5일 시의회에서 열린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단체(전교조 광주지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중순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희망교실 사업과 관련, 지난해 사업분 정산에 따른 지출영수증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전교조 측은 “그간 이런 자



료를 준 적이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소속 한 교사는 “교사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합니까. 광주교육의 방향을 흐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교실을 위촉시킨 의원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누군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A의원에 전화해 협박을 걸어 자료제출을 철회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또 전교조 소속 관계자 3명이 시의회를 찾아와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으니 자료제출 요구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피감기관에 자료제출 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아 협박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간 희망교실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었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책임자를 찾아

내기는 쉽지 않고 (의원들의 반응을) 참고 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교실 사업예산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희망교실 정산서와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A희망교실은 동아리 실험재료 구입에 전체 예산의 77%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희망교실은 예산 전액을 간식 및 식사를 사용하는데 집행했다. 김 의원은 “희망교실 정산서에 담당자·출납원·학교장 결재가 누락된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확인조차 안 하고 있다”며 “명세서와 실제 사용한 영수증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여성발전센터 여성 취업·창업 제 구실 못한다”

### 전진숙 시의원

여성 취업·창업 전문기관인 광주여성발전센터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소속 전진숙(북구 4) 시의원이 5일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생 취업·창업·자격증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여 간 여성 교육생은 모두 5621명으로 이중 취업자는 전체의 2.2%인 129명이다. 창업자는 3%인 172명이며, 자격증 취득자 수는 3.9%인 22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여성발전센터가 지역 여성의 취업·창업 등을 위해 설립된 전문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기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또 교육생의 수강내역이나 취업·창업 부문 및 기간 등 이력관리는 물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생들이 취업과 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전진숙 시의원은 “시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업과 창업 등의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애초 취지에 맞게 해당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밝은광주안과 의원**

# 스마일 라식

라식과 라섹을 뛰어넘는 안정성과 정확성이 높은 미래형 차세대 시력교정술

-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 뛰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 더욱 뚜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로내용 스마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